

2019. 10. 1.(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9년 10월 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I·SEOUL·U

보도자료

담당부서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2133-2700
공공미술사업팀장	우성탁	2133-2709
담당자	고혜원	2133-2713
관련 홈페이지	www.seoul.go.kr design.seoul.go.kr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9쪽

공공미술,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잇다.

## 작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공공미술 축제

### 「퍼블릭×퍼블릭」 ‘예술마을로의 초대’ 개최

- 10.4(금)~ 5일(토) 양일 간 잠실 종합운동장(인라인하키장)에서 개최
- 작가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예술작품, 체험 프로그램, 참여형 공연 등으로 구성
- 누구나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예술마을 조성

서울시는 10.4(금)~ 5일(토) 양일간 잠실종합운동장(운동장 내 인라인하키장)에서 공공장소에 예술적 요소를 가미한 공공미술 축제인 「퍼블릭×퍼블릭」을 개최한다.

○ 올해로 4회째 열리는 「퍼블릭×퍼블릭」 축제는 100주년을 맞은 전국체전 주제에 맞춰 ‘화합과 참여’로 기획하였으며, 예술가들이 사는 예술마을에 시민들을 초대하여 축제를 펼친다는 콘셉트로 진행한다.

- 이번 축제에서는 작가와 시민 참여를 통해 완성하는 공공미술 작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각양각색의 클라운(극단 배우)들이 이끄는 시민 참여 공연 등으로 예술마을을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본 축제는 ▲ 예술마을의 공간 구조를 설계한 작가 그룹 무소속연구소와 최민석 작가 ▲ 작품과 체험프로그램으로 예술마을을 채워나갈 세 명(김형관, 김태중, 조은필)의 전문작가 ▲ 100명의 시민 예술가 ▲ 예술마을에 산다는 콘셉트로 축제를 진행하고 안내할 클라운(극단 배우)들과 함께한다.
- 무소속연구소와 최민석 작가는 산업 현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근,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여 예술마을을 구조설계하였다. 익숙한 사물을 활용하여 새롭게 조성된 공간을 통해 시민들은 일상공간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 예술마을에 설치된 조형물 ‘100’은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강철구조인 시스템 비계를 재료로 하고, 전국체전 종목 픽토그램(그림 디자인)을 삽입하여 전국체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되새겼으며, 액상물질 보관 탱크에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 예술마을을 환하게 비출 것이다.
- 이와 더불어 예술마을에는 세 명의 전문작가가 전국체전에서 영감을 얻어 다채로운 작품을 전시하고, 각 작품마다 축제에 방문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 김형관 작가의 ‘당신의 낯선 땅’은, 전국체전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수들이 개성을 뽐내는 기회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다양한 색채와 구조물로 구성하였다. 예술마을 입구에 설치된 이 작품을 통해 시민들은 마을에 입성하면서 극적인 공간변화를 느낄 수 있다.
  - 김태중 작가의 ‘파랑’은 관람객이 설 수 있는 놀이터 공간에 전국체전을 상징하는 종목 및 트로피를 표현한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작가가 드로잉한 종이에 색칠하면서 작품세계에 점점 빠져들게 된다.
  - 조은필 작가의 ‘Beyond the time’은 여러 종목으로 이루어진 전국체전에서 관계라는 키워드를 얻어 강철과 그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시민이 직접 비눗방울을 이용해 작품에 색을 입혀 작품을 완성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 한편, 전문작가와 함께 예술마을을 채워나갈 시민예술가 100인은 전국체전을 주제로 한 글과 그림을 창작하여 예술마을에 전시할 예정이다.
  - 작품 및 참여 프로그램 외에도 예술마을 곳곳에는 클라운(배우)이 등장해 관람객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극단 ‘벼랑 끝날다’가 준비한, ▲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클라운의 지도에 따라 춤을 추는 피지컬 댄스 ▲ 리더의 몸짓을 다수의 사람들이 따라하는 모습이 수십만 마리의 멸치 떼가 한 마리처럼 보이는 멸치 떼 ▲ 우리나라 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변형시킨 퍼포먼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전국체전 시작을 성화를 표현한 생명 나무 등의 공연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디자인서울 홈페이지(design.seoul.go.kr)를 방문하거나 공공미술 축제 운영 사무국(tcarts2019@gmail.com)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박숙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이번 공공미술축제는 100주년을 맞은 전국체전이 개최하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금번 전국체전 주제인 ‘화합과 참여’와 맞춰 미술작품,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예술마을에서 공공미술을 통해 색다른 경험을 해보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하였다.

- 붙임 : 1. 행사 개요  
2. 행사 포스터  
3. 참여작가 안내

**붙임1** 행사 개요

행사개요

- 행사명 : 2019 공공미술 축제 「퍼블릭×퍼블릭」 예술마을로의 초대
- 일시 : 19.10.4.(금)~10.5.(토) 10:00~18:00
- 장소 : 잠실종합운동장(운동장 내 인라인하키장)
- 참가자 : 작가, 예술단체, 시민 등
- 행사내용 : 대형 미술작품 4점, 체험 프로그램, 참여형 공연 등으로 구성

행사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

행사일정

시간 \ 날짜	10월 4일 (금)	10월 5일 (토)
10:00 ~ 11:00	작품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작품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11:00 ~ 12:00		공연 (피지컬 댄스 11:00~11:30)
12:00 ~ 13:00		작품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13:00 ~ 14:00	오프닝 공연	
14:00 ~ 15:00	작품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공연 (멀치 떼 14:00~14:30)
15:00 ~ 16:00	공연 (멀치 떼 15:00~16:00)	공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5:30~16:00)
16:00 ~ 17:00	작품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작품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17:00 ~ 18:00		공연 (생명 나무 17:00~17:30)
18:00 ~ 19:00	행사 정리	

※ 공연 중에는 참여 프로그램 운영 중단

□ 행사 배치도



## □ 세부 프로그램

구분	작품명	내용	비고
설치작품 ·참여 프로그램	당신의 낯선 땅 - 김형관 작가	<전시> 예술마을에 입성하기 위해 통과하는 '문'으로써 역할 하는 이 작품은 전국체전 100주년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고 이 작품을 통해 관람객은 새로운 공간으로의 변화를 느끼게 됨 <프로그램> 바닥에 다양한 색상의 테이프가 겹쳐진 원 위에 여러가지 색상의 테이프를 겹쳐 색의 변화를 경험하는 체험 프로그램	12m×10m×10m (시스템 비계, 직물)  종이 테이프
	파랑 - 김태중 작가	<전시> '전국체전 출전 선수와 응원하는 관중 모두가 하나 됨'을 표현하기 위해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사용하여 전국체전 종목, 트로피 등을 연상하게 하는 드로잉 작품 <프로그램> 작가의 드로잉 작품이 출력되어 있는 종이에 색연필로 색칠 하는 체험 프로그램	1~2m (목재, 페인트)  색연필
	Beyond the time - 조은필 작가	<전시> 작품의 재료인 시스템 비계의 형태를 비정형적으로 구성하여 스포츠의 에너지를 상징하고, 인간관계(network) 어원인 넷을 의미하는 그물(net)은 전국체전을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추상적인 작품 <프로그램> 비눗방울을 이용해 시민들이 작품에 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통해 작품이 완성되는 체험 프로그램	6m×5m×12m (시스템 비계, 그물, 비눗방울)  비눗방울
전시	100주년 기념물 - 무소속 연구소×최민석	전국체전 100주년 상징 기념물	
	시민공모전	시민공모를 통한 전국체전 관련 글/그림 전시	
퍼포먼스· 공연 - 극단 벼랑끝날다	오프닝 공연	영화 '라이온 킹' ost 'Circle of life'를 개사하여 악기 연주 및 무용을 통해 전국체전 100주년을 축하하고 다음 세대를 맞이하는 설렘을 표현하는 공연	10.4(금) 13:00
	멸치떼	다수의 사람들이 리더의 다양한 몸짓을 따라 반복하는 과정이 대서양 한복판의 수십만 마리의 멸치 떼가 한 마리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공연	10.4(금) 15:00 10.5(토) 14:00
	피지컬댄스	두 명에서 손을 맞잡은 형태로 원을 이루면서 클라운(배우)의 지도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간단한 동작들을 따라하는 공연	10.5(토) 11:0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변형한 것으로, 솔래 클라운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주문을 생략한 상태에서 뒤를 돌아보면 참여자들이 얼음(정지)을 해야 하는 퍼포먼스	10.5(토) 15:30
생명 나무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의 도구인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티브한 것으로, 전국체전 시작을 알리는 성화를 통해 인류의 진화와 역동적 진보를 표현한 공연. 성화 의미가 부여된 막대기(stick)를 이용해 물결을 만들어 내는 공연	10.5(토) 17:00	

붙임2 행사 포스터





### 붙임3 참여 작가 프로필

구분	성명	작가 소개
총감독	이지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트 디렉터</li> <li>- 아트 디렉터이자 (주)티씨아트 대표로, 2000년대 초부터 지하철, 광화문 등 다양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li> </ul>
작가 ·예술단체	김태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li> <li>- 다양한 콜라보 작업을 해 온 우리나라 1세대 팝아트 작가로, 액자에서 벗어나 티셔츠, 오토바이, 인테리어 등 다양한 곳에서 드로잉 작업을 하고 있다.</li> </ul>
	김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li> <li>- 테이프를 이용한 섬세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평면 작업과 공간을 아우르는 설치 작업을 한다.</li> </ul>
	조은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li> <li>- 파란색을 주로 사용하여 작품을 다양하게 형태로 표현하는 설치작가이다.</li> </ul>
	무소속연구소 × 최민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단체·작가</li> <li>- 무소속연구소는 문화·예술의 예술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며, 전시기획,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li> <li>- 최민석 작가는 무소속연구소에서 발굴한 신생작가로 조형물 위주의 작업을 하고 있다.</li> </ul>
	이용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출가</li> <li>- 극단 '벼랑 끝 날다'의 극단장이자 연출가이며, 대학로와 같은 연극계에서 활발한 활동 중이다.</li> </ul>